

보도시점 2024. 9. 3.(화) 14:00 배포 2024. 9. 3.(화) 13:00

2024년 주요 20개국(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 최근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주요 도전과제와 협력방향에 대해 종합적 논의
- 김범석 차관, 세계경제의 복합적 도전요인에 대응한 세 가지 복원 강조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등은 9.3(화) 14시에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2024년 주요 20개국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브레튼우즈 체제 출범 80주년을 맞아 특별히 한국은행과 브레튼우즈 개혁위원회(RBWC**)가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 2013년부터 개최되어 이번에 10화째를 맞이한 행사로 국내외 석학과 주요 20개국(G20) 정책담당자가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도전과제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 RBWC(Reinventing Bretton Woods Committee)는 1994년 현 사무총장인 Marc Uzan에 의해 설립, 다양한 행사와 세미나를 주최하며, 글로벌 금융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 지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세계경제가 지정학적 분열과 성장잠재력의 하락, 기후변화와 기술전환, 그리고 세계(글로벌) 정책전환 등 복합적 도전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세계경제 성장의 회복과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①성장잠재력, ②세계(글로벌) 질서와 규범, 그리고 ③국가간 정책 공조 세 가지의 복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김 차관은 성장잠재력의 복원을 위해 최근 세계은행(WB)이 발표한 세계개발보고서('24.8)의 제안*을 소개하는 한편, 구조개혁을 통한 효율성 향상과 재정의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응하여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질서의 회복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AI)의 안전한 활용 등을 위한 공동의 규범 마련을 제안하는 한편, 글로벌 정책조정 시기의 금융시장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취약국이 직면한 위험(리스크)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공조의 복원을 촉구하였다.

* 성장잠재력의 회복을 위해 투자(Investment), 기술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 3i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성장의 슈퍼스타로 한국의 사례를 소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또한 세계경제가 국제 금융과 무역의 분절,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전환 등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세계경제와 금융의 주요 위험(리스크) 요인과 정책당국의 역할을 조망하고, 세계경제의 균형적 회복과 국제금융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제안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마수드 아메드(Masood Ahmed) 글로벌 개발센터 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다음 다섯 가지 분야(세션)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경제·금융 여건과 도전 요인, 그리고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협력방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1일차, 9.3(화)) ❶ 글로벌 충격에 대응한 경제정책
 ❷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상황의 무역·투자 협력
- (2일차, 9.4(수)) ❸ 통화정책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금융안정
 ❹ 디지털 금융, AI와 금융안정
 ❺ 새로운 세계의 브레튼우즈

또한, 기획재정부는 이번 컨퍼런스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는 주요20개국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IFA WG*)에서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 및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 개혁에 관한 주요20개국 정책공조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Working Group(IFA WG)
 - 위기에 강한 국제금융체제 구축과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실무 회의

- ※ (별첨1)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개회사
 (별첨2)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개회사
 (별첨3) 2024년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프로그램

담당 부서	국제 금융국 다자금융과	책임자	과 장	강희민 (044-215-4810)
		담당자	사무관	박세웅 (loneilia@korea.kr)
			사무관	하다애 (daae0517@korea.kr)
			사무관	전홍규 (napole80@korea.kr)



1 인사 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범석입니다.

먼저, 「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과
유튜브 중계를 통해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함께 준비해주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과 KDI 조동철 원장님,
마크 우잔 브레튼우즈 개혁위원회 이사장님,
그리고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마수드 아메드 글로벌 개발센터 원장님과
컨퍼런스에 참여해주신 모든 연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로 벌써 10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브레튼우즈 체제 출범 8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한국은행과 브레튼우즈 개혁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으며,

세계 경제의 중요한 전환 국면을 맞아
기존 금융안정 중심의 논의를 넘어
우리가 직면한 경제·금융 여건과 도전 요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컨퍼런스가
국내외 여러 석학분들의 지혜를 모으고,
세계 경제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여건과 과제

여러분,
연초 다보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의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이
강조한 것처럼

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미-중 갈등, 러-우 전쟁, 중동 분쟁 등에 따른
지정학적(Geo-political) 리스크가
공급망 분절,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이어지며
글로벌 성장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처럼,
세계적인 '정책 조정의 시기'가 도래한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의 방향과 속도차이로 인한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분열은
개도국과 부채 비중이 높은 취약국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수 국가의 재정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인구학적 변화와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잠재 성장전망이
역사적 추세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후 변화와 AI 등 미래 도전요인이 초래할 불확실성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3-1 대응방안① : 성장 잠재력의 복원

내외 귀빈 여러분,

경제적 분열과 성장 잠재력의 하락,
그리고 기후변화와 기술전환,
글로벌 정책 전환 등이 야기할 불확실성에 맞서
우리는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해야합니다.

오늘 저는 세계경제 성장경로의 회복과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 ① 성장 잠재력,
- ② 글로벌 질서와 규범 그리고
- ③ 국가간 정책 공조

세 가지의 복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 성장잠재력의 복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동과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은
성장잠재력 복원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세계은행(WB)이 발표한 세계개발보고서('24.8)는
성장잠재력의 회복을 위해
투자(Investment), 기술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을 언급하며,
이 중에서도 낡은 제도와 관습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보고서는 '97년 외환위기를 기회로
금융 시장과 재벌 개혁 등 혁신을 단행한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로 소개하고 있으며,

한국은 최근에도 '역동경제 로드맵'('24.7)을 발표하며,
노동과 자본시장 개혁, 그리고 디지털 전환 등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기 위한 혁신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 역시 성장잠재력 회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IMF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증세에 비해 재정지출 축소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증세보다는 중복 사업과 성과가 낮은 사업의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술혁신,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3-2 대응방안② : 글로벌 질서와 규범의 복원

둘째, 국가간 신뢰에 기반해 글로벌 질서와 규범을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 경제의 분열과 불확실성의 확대,
미지의 기술적 영역에 대응하여
국제 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원칙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WTO 중심의 다자무역질서의 회복은
세계 경제의 분열을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다자 무대와 양자 협력과정에서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해소하고,
복원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AI 등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한
규범의 마련도 필요합니다.

국가별로 분절화된 기후변화 대응과 전환정책은
다른 국가에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의 원칙 마련과 조율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AI를 통해 촉발된 혁신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도록,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글로벌 규범을 마련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3-3 대응방안⑥ : 국가간 정책 공조의 복원

마지막으로, 국가 간 정책 공조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정책 조정의 시기'에 직면해
국가 간 정책공조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주요국 거시·통화 정책 변화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G20을 중심으로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정책 결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비은행금융중개(NBFI), AI와 가상자산 등
취약분야의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규제의 조화 등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차입 제약에 직면한 취약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도 중요합니다.

먼저, 취약국의 신속한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부채 정보의 투명성 강화, 절차개선 등을 통해
G20에서 합의한 Common Framework*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 Common Framework for Debt Treatment: 中 등 非파리클럽 회원국 채권증가에 대응,
G20 內 파리 + 非파리클럽국이 모두 참여하는 채무구제 플랫폼 마련

더불어, 공적개발원조(ODA) 등 재정지원 확대와 더불어,
기술과 지식공유 등을 가속화하고,
다자개발은행(MDB)의 역량과 역할 확대를 위해 협력하며,
취약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4 G20의 역할 및 마무리

내외 귀빈 여러분,

G20은 그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조타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G20의 역할이 다소 제약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 세계의 주요국이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로서
G20의 중요성은 어느 때 보다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요한 정책 조정 시기에 직면하여,
우리는 G20을 통해 다시 한번
다자간 협력과 공조의 기반을 굳건히 다져야 하며,

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회의를 제기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다양한 도전과제들에 대해
통찰력 있는 협력 방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DI 조동철입니다.

기획재정부, KDI, 한국은행,
브레튼우즈 개혁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2024 세계경제와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준비해주신
기획재정부 김범석 차관님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글로벌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원장님이신
마수드 아메드(Masood Ahmed) 박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발표와 토론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전문가분들,
G20 국제금융체제(IFA) 정책담당자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많은 귀빈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심화로
국제 금융과 무역이 분절되고 있어,
주요국들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산업구조를 균형 있게 재편성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고
주요국들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고금리로 위축되었던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금리 인하 시기 및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배경으로 기획된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 경제의 전환기에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들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각국 정책당국의 역할을 조망해 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가 글로벌 경제의 균형적 회복과
국제 금융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각국의 정책당국자,
국제기구 관계자, 학계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기여 덕분에
이번 컨퍼런스가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3

2024년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프로그램

1일차 9.3(화)

프로그램	연사
개회식 (14:00-15:00)	◇ 개회사 : 1차관님 ◇ 개회사 : KDI 원장 * 개회사 후 단체사진 ◇ 기조연설 : 마수드 아메드 (現 글로벌개발센터 원장)
Coffee Break	
세션1: 글로벌 충격에 대응한 경제정책 (15:20-16:30)	◇ 사회: 신성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 발표 ① 장·단기 글로벌 충격과 정책환경 - Gabriel Galipolo (브라질 중앙은행 부총재, 화상참여) ◇ 토론: Chris Papageorgiou (IMF 아시아태평양국 자문관, 화상참여) Claudio Borio (BIS 통화경제국장, 화상참여) 김진일 (고려대학교 교수)
Coffee Break	
세션2: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상황의 무역·투자 협력 (16:50-18:00)	◇ 사회: Danny Leipziger (조지워싱턴대 교수) ◇ 발표 ① 국제무역 분절화 현황 및 대응방향 - Caroline Freund (샌디에이고대 글로벌 정책대학 학장) ② 글로벌 무역·투자 협력 방향 - Gabriel Felbermayr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원 원장) ◇ 토론: Ralph Ossa (WTO 수석 이코노미스트, 경제조사·통계국 국장) Daria Taglioni (WB 무역 및 국제통합·개발연구 그룹 연구관리자) 이은희 (서울대학교 교수)

2일차 9.4(수)

프로그램	연사
세션3: 통화정책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금융안정 (09:30-10:40)	◇ 사회: William Roos (佛 재무부 무역·개발정책국 국장) ◇ 발표 ① 통화정책의 불확실성과 자본 이동 변동성(Volatility) 및 글로벌 부채 문제 - Ayhan Kose (WB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개발전략국장) ② 저소득국(EDMEs)으로의 자본 이동 - Laura Alfaro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 토론: 김미루 (KDI 국제연구팀장) Layna Mosley (프린스턴대 교수) 이재우 (IMF 조사국 부국장)
Coffee Break	
세션4: 디지털 금융, AI와 금융안정 (11:00-12:10)	◇ 사회: 김준일 교수 (KDI 초빙연구위원) ◇ 발표 ① CBDC, 국경간 결제와 새로운 국제금융체제 - John Schindler (FSB 사무총장) ② 디지털·AI 기술발전의 도전요인과 합의 - Mahvash Qureshi (IMF 통화자본시장국 실장, 화상참여) ◇ 토론: Zou Xiaonan (UBS 디지털자산팀 팀장)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부장) Oliver Wunsch (Oliver Wyman 컨설팅파트너)
Luncheon	
세션5: 새로운 세계의 브레튼우즈 (14:00-15:10) (1·2일차 전체 랩업)	◇ 사회: Marc Uzan (브레튼우즈 개혁위원회 이사장) ◇ 토론: Jacob Frenkel (G30 이사회 의장) Rakesh Mohan (사회경제진보센터 명예회장) Pablo Moreno (IMF 독립평가국 국장) 신현송 (BIS 조사국장, 화상참여) Andrew Sheng (홍콩대 아시아글로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화상참여)